

[실무수습기-검찰]

##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진실한 마음(實意)으로 공익의 대표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 김 영 현

- 대구 시지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 I.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다녀온 ‘검찰 일반 실무실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검찰실습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 선발과정, 실무진행과정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습에 참여한 교육생의 입장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해 가감 없이 전해드릴 것 입니다. 다만 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 아니고, 교육생의 입장에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가미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검사를 꿈꾸고 검찰실습에 지원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 II. 검찰실무실습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선발과정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 실무시스템일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0

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검찰, 법원, 법무법인을 비롯해 법률구조공단, 법제처, 국방부 등 다양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그 중에서도 검찰로, 2주의 과정 중 1주는 법무연수원에서, 1주는 제주 지방검찰청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검찰실무실습에 지원한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과 검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검사라는 직업은 늘 저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 기회를 통해 검찰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검찰 실무실습 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두 가지로 일반실무실습과 심화실무실습이 있습니다. 각 실무실습은 모집 시기가 되면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과정의 경우에는 제가 참여한 일반실무실습을 여름에 받고, 심화실무실습을 겨울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실무실습의 모집인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0%입니다. 제가 재학 중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총 8명이 선발되어 1차 4명, 2차 4명이 실습에 참여하였습니다. 일반실무실습은 다시 1차와 2차로 나뉘게 되고 1주의 간격을 두고 실습을 받습니다. 1차 교육생들이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지방검찰청으로 실습을 내려가면 다시 2차 교육생들이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입니다. 실무수습 2주차에 교육을 받게 되는 지방검찰청은 검찰실무실습 지원서에 1~3지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만 존재하고 다른 지역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실습을 희망하는 교육생이 없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생들이 모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2주차 실무수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습에 참여하는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아직 실무수습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학교 수업성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검찰실무실습지원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입니다. 일반실습의 경우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의 인원을 선발하고, 다른 실무부서를 실무수습 장소로 원하는 원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지원이 어려울 정도는 아닙니다.

### Ⅲ. 검찰일반실무실습 실습과정

#### 1.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은 기록검토, 형사법 전반에 대한 강의,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강의, 검사와의 대화, 체육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다섯 개의 반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고, 기록검토와 체육대회는 반 별로 참가하고, 기록에 대한 강평이나 강의는 대강당에서 다함께 받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 (1) 형사법에 대한 강의,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강의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강의를 들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강의는 바로 형사법 전반에 대한 강의로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이신 최운수 부장검사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강의 내용은 형사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강의 시간에는 실제로 검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하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강의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묘사된 검사들의 수사방식이나, 사건처리방식에 비해 실제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폭력적이거나 독단적이지 않다는 점 이었습니다. 사건 처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존칭과 존대를 사용하고, 수사관들과 연계해서 사건을 처리해가는 검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검찰조직과 검사들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 (2) 검사와의 대화

검사와의 대화 시간도 법무연수원 교육 중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는 교육생들이 그 간 검찰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검사님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검사님들께서 직접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이 하는 질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질문은 향후 검찰의 검사선발에 관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선발되는 검사 인원에 대한 설명이나, 검사선발 과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문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곤란한 순간, 또는 가장 뿌듯했던 순간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검사님들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3) 기록검토와 강평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기록 실습이었습니다. 기록은 총 3가지가 주어졌고, 만나절에 걸쳐 기록을 검토하고 다음날 강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록교재는 실제 사건기록을 토대로 사실에 가깝게 작성되었고, 사건의 일부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입건부터 그 처리과정 전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록검토 시간에는 주어진 기록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의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법조나 죄명, 구형, 필요한 부가처분 등을 판단했습니다. 기록에 자료가 부족하여 기소, 불기소를 결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 보강수사 혹은 추가수사가 필요한지 등도 검토하고, 어떠한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기록은 다음 날 강당에서 기록별 담당검사님께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강평은 주로 전날 검토했던 기소, 불기소 여부나 적용법조, 필요한 증거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4) 체육대회와 그 밖의 교육과정

체육대회는 아마도 대다수의 교육생들이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교육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에는 검사님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이고, 또 검찰실무수습에서 체육대회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교육생들도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고, 땀을 흘려갈수록 왜 검찰실무수습과정에서 체육대회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같이 땀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딱딱하고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던 검사님들에 대한 선입견도 깨뜨릴 수 있었고, 같이 교육을 받는 동기생들과의 공감대도 형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법무연수원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설문조사나 일선청 실습에 대한 안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일주일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향후 교육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일선청 실습에 대한 안내는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교육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필요한 지식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 2. 제주지방검찰청 교육과정

제주지방검찰청 교육과정은 지방검찰청 견학, 형사재판 공판참관, 기록교재 검토 및 강평, 영상녹화실습, 교도소 및 소년원 견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1) 제주지방검찰청 견학

제주지방검찰청 실습 과정에는 내부견학과 외부 관련기관 견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주지방검찰청 내 견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견학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과, 수사과, 총무과, 집행과를 견학하고 생리심리검사실, 범죄피해지원센터, 형사 조정실을 견학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내 수사관님들을 비롯한 부서 근무자분들께서는 모두 친절하게 해주셨고, 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 (2) 형사재판 공판참관

형사재판 공판참관에서는 제주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의 판단이 양형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 모두 배심원을 염두하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특이했고, 증인신문 등에 있어서도 배심원들에게 실제적 진실이나 증거의 신빙성 유무 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 국민참여재판의 특수성과 유죄 입증의 어려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학도로서 형사재판을 처음 참관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 참여하신 공판검사님께 직접 질문도 해볼 수 있어서 특히 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3) 기록교재 검토 및 강평

법무연수원에 이어 지방검찰청 실습과정에서도 기록교재 검토와 강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에서도 3개의 기록을 검토했는데, 법무연수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록교재에 대한 강평을 담임 검사님께서 직접 해주신다는 점과, 기록을 검토할 때 작성해야 할 문답이나 서류가 보다 다양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법무연수원에서의 기록검토는 단순히 유, 무죄의 판단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다면 지방검찰청에서 행해진 기록검토는 직접 기록검토보고서라는 양식의 서류를 작성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강평에 있어서도 한정된 시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는 법무연수원과 달리 교육생 개개인이 작성한 기록검토보고서를 서로 공유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 검사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법무연수원에서의 기록검토

시간보다 더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4) 영상녹화실습

영상녹화실습은 3개의 기록 중 하나에 대하여 2인 1조로 검사와 피의자 역할을 맡아 실제 영상녹화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상녹화 실습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유죄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기록을 볼 때에는 단순히 의미 없어 보이던 문답도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어떤 답변을 원했던 것 인지 영상녹화실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 (5) 교도소 및 소년원 방문견학

외부기관 견학은 실습 마지막 날 진행된 과정으로 제주교도소와 제주소년원을 방문견학 했습니다. 소년원을 방문하고 느낀 것은 소년원 학생들은 아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라는 것 이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또래와 같이 있을 때는 장난도 칠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그들의 모습에 그 간 그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 IV. 검찰실무수습을 수료하면서 느낀 점

#### 1. 살아있는 형사법을 마주하다

검찰실무수습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살아있는' 형사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 이었습니다. 모든 법률지식은 평면적일 때 보다 입체적일 때 보다 잘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실무실습은 실제 사건과 가장 유사하게 구성된 기록을 검토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사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암기하기만 했던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형사법에 대한 흥미를 새롭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 2.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

검찰실무실습에 참여하면서 같은 꿈을 꾸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좋았지만, 열정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에서 자극을 받고 다시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3. 고정관념을 깨다

검찰실무실습을 마치면서 검사와 검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

러분은 혹시 검사에게도 선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드라마 ‘대물’에서 하도야 검사가 줄줄 외우던 그 검사선서가 바로 이 것입니다. 제가 범무연수원과 지방검찰청에서 본 검사님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속의 검사가 아니라, 바로 이 선서 속의 검사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추어지는 왜곡된 권위의 표상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진 사람. 그것이 가까이서 지켜본 검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 V. 마치면서

여러분은 혹시 검찰 로고의 의미를 아십니까? 검찰 로고는 대나무의 울곧음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다섯 개의 직선이 저마다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들은 검찰 로고를 권력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찰과 검사를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검사를 꿈꾸면서도 검찰을 권력의 마물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주간 제가 들여다 본 검찰은 그런 부정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마물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의(正義)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탈한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검찰실무수습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글은 실습생의 입장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제 글이 독자여러분께서 실무실습과정을 선택하시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검사를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라면 꼭 검찰실무과정에 지원해서 경험하시기를 권합니다.

끝으로 검찰실무실습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신 범무연수원과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